I - 2 - 2

제 목	국 문	뇌혈관 질환과 심근경색증에 관련된 요인의 비교
	영 문	Comparisons of Risk Factors between Cerebrovascuar Disease and Myocardial Infarction
저 자 및 소 속	국 문	박종구, 김헌주*, 박금수**, 이성수***, 장세진, 고상백, 이은경 연세대학교 원주의대 예방의학교실, 신경외과학교실*, 내과학교실**, 신경과학교실***
	영 문	Jong-Ku Park, Hun-Ju Kim*, Keum Soo Park**, Sung Su Lee***, Sei Jin Chang, Sang Baek Ko and Eun Kyoung Lee Departments of Preventive Medicine, Neurosurgery*, *Internal Medicine**, and Neurology***,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Wonju, Korea*

분 야	역 학	발 표 자	박 종 구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95 년 12 월		

1. 연구 목적

가. 뇌혈관질환과 급성 심근경색증(이하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별 수준을 파악한다.

나. 뇌혈관질환과 심근경색증의 위험요인을 상호 비교한다.

다. 판별분석을 이용하여 뇌혈관질환과 심근경색증을 구분 짓는 변수를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연구대상으로 원주기독병원에 1993년 3월 1일 이후 입원한 20세이상 환자중 급성 심근경색증, 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및 허혈성 뇌혈관 질환 환자 330명을 입원시에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한 변수는 인구학적 변수, 가족력, 과거력, 현재력, 이학적 소견, 소변검사 소견, 혈액검사 소견이었다.

결과분석시 단일변량분석은 분산분석과 X^2 검정을 사용하였으며 다변량분석은 판별분석을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질병별로 성별 분포를 보면 심근경색증과 허혈성 뇌혈관질환은 남자가 각각 73.8%, 64.7%로 남자가 많았으며 지주막하출혈과 뇌실질내출혈은 여자가 각각 75.0%, 60.2%로 여자가 많았다.

대졸이상의 교육수준은 심근경색증이 47.5%로 뇌혈관질환에 비하여 높았다. 경제상태도 심근경색증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혈액형은 심혈관질환에서 B형(14.5%)이 적었으며 뇌실질내출혈에서는 AB형(2.2%)이 적었다. 수면중에 코를 고는 율은 남자에서 심근경색증에 비하여 뇌혈관질환이 높았다. 귓볼에 주름이 진 율은 심근경색증과 허혈성 뇌혈관질환이 출혈성 뇌혈관질환보다 남녀 모두 높았다.

혈중 콜레스테롤은 심근경색증과 허혈성 뇌혈관질환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중성지방은 출혈성 뇌혈관질환이 높았으며 LDL/HDL비는 심근경색증과 허혈성 뇌혈관질환이 높았다.

허리/둔부 비와 초경 연령은 심근경색증과 허혈성 뇌혈관질환이 높았으며 신장은 출혈성 뇌혈관질환이 컸다

판별분석결과 4개질병을 판별하는데는 귓볼주름, 성, 신장, 교육정도, 알부민, 포타시움, 허리/둔부 비, 혈액형, LDL/HDL비, 코골음, 흡연량, 경제상태, 총 빌리루빈, 크로라이드, 중성지방, 인 등 17개 변수가 관여하였으며 이중 귓볼 주름의 영향이 가장 컸다. 옳은 판별율은 59.4%였다.

4. 고찰

심근경색증과 지주막하출혈과 뇌실질내출혈 및 허혈성 뇌혈관질환 환자 330명을 대상으로 위험요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뇌혈관질환과 심근경색증간에 차이를 보이는 요인으로는 교육수준, 경제상태, 혈액형, 코고는 율이 있었으며 둘째, 출혈성 뇌혈관질환과 기타 다른 질환간에 차이를 보이는 요인으로는 흡연율, 당뇨병과 편두통의 과거력, 귓볼의 주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HDL비, 허리/둔부 비, 초경연령, 신장이 있었다.

즉, 뇌혈관 질환과 심근경색증간에 차이를 보이는 요인보다는 출혈성 뇌혈관질환과 허혈성 질환(허혈성 뇌혈관 질환과 심근경색증)간에 차이를 보이는 요인이 더 많았다. 판별분석결과 4개 질병을 판별하는데는 총 17개 변수가 관여하였으며 이중 귓볼의 주름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